

“사는 일 눈물나면 마음밭 꽃씨 심어요”

심진 스님 11년만에 4집 '구도의 길' 발매



노래로 포교하는 심진 스님

사는 일 눈물나면 피는 꽃을 보아요/ 꽃들이 지는 것 두려워 피는가/ 누구도 후회 없이 이룬생은 없나니/ 눈물은 꽃잎처럼 날아래 뿌리고/ 마음밭 무성하게 꽃씨를 심어요

사는일 눈물나면

심진 스님(봉선사 기회국장)이 11년 만에 4집 앨범 '구도의 길'을 내놓았다. 이번 앨범에서 스님은 황정원 고규태 시인 등의 시에 곡을 붙인 12곡을 국악장악곡으로 담아냈다. 심진 스님은 7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곡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16살에 출가해 스님으로 살고 있지만 저는 수행자이지 가수는 아니에요. 한번도 가수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한 적은 없죠. 노래가 좋아 노래를 부르다 보니 앨범을 3장을 냈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고당사에서 9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나오니 다시 노래가 부르고 싶어졌어요. 이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포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1집 때부터 함께 활동해

온 황정원 시인이 병중에도 가사를 써주었다고 한다. '사는 일 눈물 나면' '무상' 등 구도의 과정을 담은 노래도 있지만 고규태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소녀 아리랑'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노래다.

봉숭아꽃 꽃잎 따서 손톱 끝머물기던/ 내 어릴 적 열두살 그 꿈은 어디갔나...오늘도 아리랑 눈물 솟는 소녀 아리랑/ 내 꿈을 돌려주오 내 청춘을 돌려주오

스님은 “노래를 통해 청춘을 잃고 역사의 희생자가 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그려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스님은 이번 앨범 출시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펼치고자 한다.

“이 노래가 복력이 되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먹을 곳이 필요한 곳에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무료급식이나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 보다는 가난한 이웃들의 먹거리를 나누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심진 스님은 지금까지 그대를 위한 시, 육아의 꽃신, 바람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등의 음반을 내놓았다.



'구도의 길' 앨범 표지

정혜숙 기자

올여름 전국은 '처녀상정'의 연화시대

전국 연꽃 축제 '다채'

여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연꽃을 만난다. 세속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하는 연꽃은 그 청정하고 넉넉함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호수 위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연꽃의 향연은 세속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한다. 여름 연꽃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연꽃축제를 찾아가 보자.

각 지역마다 연꽃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조계종과 함께하는 무안연꽃축제,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전북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등 다채로운 연꽃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연꽃축제는 '蓮(연), 人(인)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을 찾아가고 있다. 봉선사는 “불교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음악공연을 통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또한 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과 불교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7월 27일 봉선사 경내에서 개최되는 음악회는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으로 구성된 무대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가수 허각, 국악인 박애리, 팝핀 현준, 심진 스님, 가수 이창휘, 바이올리니스트 김경민 등이 출연한다.(031)527-1956

무안연꽃축제는 올해 조계종과 공동 개최해 눈길을 끈다. 7월 24~28일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는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대에서 열린다. 무안군 문화관광과는 “이번 축제는 발우공양 체험, 연등박



여름이 절정에 달하며 지역마다 연꽃축제가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해 남양주 봉선사 연꽃축제 장면

봉선사, '연인 음악회' 허각 등 출연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불화전·서예전 2013 무안연꽃축제 조계종과 함께

허기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백련지 연등길 걷기, 수생식물 생태전시, 황토골 난 수석전시회, 분재전시회, 사진전시회도 백련상품 홍보, 세계 연 전시 등은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부대행사로 다문화가정 나눔장터, 장애 체험 행사 등도 개최되며 체험행사는 연등밧기, 연꽃양조공예체험, 연꽃페이스 페인팅 연꽃길 보트탐사, 사찰음식 시연체

험, 발우공양체험 불교의상 전시체험, 양파 김치담그기, 다도체험 등이 있다. (061)-450-5472

전북 김제 청운사의 제 12회 하소백련제는 7월 12일~21일까지 청하면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열린다. 도원 스님 불화전, 토광 정종국 도자전, 한발 서예전(반야심경) 등은 물론 백련차 명상시연 등 불교문화 체험과 더불어 연꽃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청운사는 “백련은 독성이 없고 다른 연에 비해 수 없는 향과 맛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 기간 중에는 하소백련 차와 하소백련 된장 등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백련 갈국수 등 다양한 백련음식도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063)543-1248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는 7월 18~21일까지 부여군 부여읍 서동공원 공남지 일대에서 열린다. 무왕즉위식, 서동선화나이트 퍼레이드, 청소년 락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연꽃 페이스 페인팅, 서동선화 캐릭터 컵 그리기, 연꽃 솟대 및 손수건 만들기 등 연꽃 행사가 펼쳐진다. (041)-830-2921

이밖에도 서울 신촌 불원사가 8월 7일~17일까지 여는 제11회 서울 연꽃 문화대축제는 영산대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기차길열 풍호마을 연꽃축제가 8월 2일~5일까지 열리며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은 5만평 규모의 정원에서 수려한 연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부처님 말씀 곡선 미학에 녹이다

임무상 화백 개인전 파리 셀렉티브 화랑서

“제 작품은 자연 그대로가 불상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림 속에 표현되고 있는 오방색은 명화에서 따온 것이죠. 굳이 형태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제 작품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도사 노거송을 소재로한 임무상 화백의 작품

수목의 한국적 곡선미학을 화폭 위에 펼쳐고 있는 불자 작가 임무상 화백의 파리초대전이 7월 14일까지 파리 셀렉티브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통도사를 배경으로 한 '노거송'과 자연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隣(Rhin)' 등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천연염료를 통해 자연의 관조를 예술로 표현한다. 자연에 대한 관찰과 그 감응을 화폭 위에 펼쳐며 한국적 정서와 자연의 위대성을 곡선의 미학으로 창출한다.

아침마다 <천수경> <반야심경>을 묵속하는 임 작가는 재가불, 염, 역사의 장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지금까지 그는 15회의 개인전을 펼쳐왔고 Zurich Art Fair 의 다수 국제전에 참가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임 작가는 “현재 파리 현지에서 반응이 좋아 전시 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태리 인도 등에서도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불교 서예의 복원과 발전 도모하겠다”

천태종 제 1회 원각서예대전

전통문화의 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예술인식을 확산시킬 서예대전이 불교계에서 개최된다. 천태종은 제 1회 원각 서예대전을 마련하고 공모작을 접수받는다.

천태종은 “PC의 생활화로 위축되어가는 글씨 예술에 대한 재인식과 서각·경전판각·사경 등 불교서예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서체의 다양화를 통해 산업디자인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천태종종정상) 1명·상패 및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천태종총무원장상) 1명·상패 및 상금 400만원 △우수상(금강신문사장상)-상패 및 상금 100만원 △특선-상패 및 기념품 △

입선-상패 및 기념품 등이 주어진다. 심사 발표는 2013년 10월 10일 전후 개별통지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부분은 한글, 한문, 국한문 사경으로 출품수는 1인 3점 이내다. 접수기간 2013년 9월 23일~30일(최종일 우편 소인 유효)

9월 30일까지 최종 접수

9월 3일까지 사진공모전도

까지이며 출품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접수증은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천태종은 '제3회 천태종 전통 불교사진 공모 및 전시전'도 개최한다. 불교문화콘텐츠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마련



지난해 천태종에서 실시한 사진공모전 심사 장면

된 이 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당선자는 9월 12일 금강신문홈페이지 및 한국사진작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당선작은 2013년 10월 16일 ~ 21일까지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전시되며 10

월 16일 시상식을 갖는다. 공모주제는 불교 관련 소재로 국내·외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작품 규격은 최소 600만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1인당 4점 이내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 가능하다.

△금상 1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은상 2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동상 3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50만원 △佳作 5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장려 5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10만원 등이 주어진다.

접수처는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허브 102동 308호 천태종 총무원 서울사무소다. (02)723-155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명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안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다가오는 칠석과 백중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양초 2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는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념 양초 무료 보시 행사에 이은 두번째 행사입니다. 보시 예정인 초는 **흰색 육각초**로써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에 상당하는 고급 양초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반사되며, 받으실 1.사찰명 2.사찰주소 3.사찰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후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팩스 031)766-0233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주문은 **연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연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9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반(giban)
니만의 완성세계 기반(giban)
기반(giban) 원산, 선장과 명품, 신명만 내의의 명품입니다
기반(giban) 상용부터 가정용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명품입니다